

■ KAA NEWS

1. 자율심의기구, 최우수광고 선정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올해 분기별로 뽑은 좋은 광고 가운데 다음커뮤니케이션 기업광고를 99년 최우수광고로 선정, 발표했다. 또한 우수 광고에는 현대중공업 기업광고가 뽑혔다.

최우수 좋은 광고로 선정된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기업광고 '말뚝'편은 다음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서로가 통하는 또 다른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잘 담아내어 '한국을 따뜻하게 하는 힘'을 보여준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이 광고는 4/4분기 좋은 광고로 선정되면서 올해의 최우수 광고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 화장품·의약부외품 비교광고 허용

내년 1월부터 화장품·의약부외품 등에 대한 광고기준이 완화돼 제품간 비교광고와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과 화장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함께 묶어서 규제해온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화장품, 의약부외품, 의료용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장품·의약부외품은 경쟁상품에 대한 비교표시가 허용돼 다른 회사에서 만든 제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3. 데이콤, 광고의사결정 시스템 개발

데이콤이 적정 광고비 수준과 광고비 투입에 대한 매출액과의 상관 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데이콤 광고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이라는 광고효과 측정모델을 매경경영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이 시스템으로 인해 광고비와 매출액의 상관관계는 물론 광고의 완성도와 매체 편성의 효율성이 광고비와 매출액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할 수 있게 됐다. 데이콤이 이 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정보통신업계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중요도가 어느 업계보다도 높아지는 것에 반해 그간 과학적 광고예산 관리와 광고비 투입 수준을 결정하는 체계적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4. 삼성전관, 삼성SDI로 사명변경

삼성전관은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진정한 주역이 되기 위해 '디지털



텔 세계의 리더'를 슬로건으로 하여 삼성SDI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SDI의 'S'는 삼성의 일원임을 의미하며, Digital Display 사업을 의미하는 'D'와 Internet Component를 의미하는 'I'는 21세기 삼성SDI의 비전을 담고 있다.

5. 국제산업협력재단, 벤처거래소 개설



국제산업협력재단은 인터넷 비즈니스를 통한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한 종합정보체제를 갖춘 한국벤처거래소를 개설했다.

한국벤처거래소는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기업과 국내외 투자자, 바이어 등 각자가 거래의 내용과 조건을 입력,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개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수출, 기술제휴, M&A,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국내 최초의 중계시스템이다.

6. 광기회, 로제타상 시상 및 송년모임

언론사 광고담당 기자와 광고계 홍보담당자들의 모임인 광기회는 12월 15일 한국일보 송년클럽에서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제타상 시상식을 갖고 송년모임을 개최했다. BC 136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로 나타난 최초의 광고가 기록된 비석인 로제타에서 이름을 가져온 로제타상은 활발한 광고저널 활동을 통해 건강한 광고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로가 큰 회원에게 수여된다. 올해에는 광고산업 발전과 광고에 대한 일반인 인식 제고에 공헌한 공로로 한겨레신문 경제부 권태호 기자가 수상했다.

7. 제일기획, 하쿠호도와 합작사 설립

제일기획은 제일보젤의 합작선을 보젤에서 일본계 광고회사인 하쿠호도로 변경, 합작광고회사를 설립키로 하고 공식계약을 체결했다. 제일보젤의 최대 주주였던 제일기획은 지분 51%를 하쿠호도측에 매각, 제일보젤의 삼성그룹 계열분리가 연내에 완료될 예정이다. 제일기획과 하쿠호도 양사는 합작사의 이름을 '하쿠호도제일'로 정하고 출범 후 3년 내에 국내 5위권 광고회사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8. 금강기획, 코디언트그룹에 매각

금강기획이 영국계 코디언트그룹에 매각됐다. 코디언트커뮤니케이션그룹(CCG)은 금강기획의 기존 주식 80%를 총 1억 2,000만 달러에 인수키로 하고 이사회에 최종 승인을 받았다.

매각대금은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분할지급 형태로 입금될 예정이다. 금강기획은 현대상선이 83.3%, 정주영 명예회장 6.7%, 정몽헌 회장 10% 등 현대그룹이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현대 상선의 지분 20%를 제외하고 모두 매각됐다.

CCG는 런던에 본사를 두고 전세계 70개 이상의 국가에서 광고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 광고회사로 그 동안 현대자동차의 해외광고를 맡아왔다. 앞으로 CCG는 금강기획의 최대 대주주로서 80% 지분에 해당하는 임원을 선임하는 등 본격적으로 경영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9. 애드팸컴, 12월 우수광고 선정

광고전문지 애드팸컴(Ad.com)은 12월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굿모닝증권 TV광고를 선정했다. 이 광고는 기존의 증권회사 광고와 다른 독특한 영상과 메시지로 신선한 느낌을 전달했다는 평을 받았다. 애드팸컴이 선정하는 베스트 광고는 매달 4대매체와 인터넷에 신규로 게재되는 광고를 대상으로 하며, 현직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로 이루어진다.



10. 코래드, 파격인사 및 제2창업 선언

코래드가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백승화 이사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한 번에 3단계나 승진한 백승화 대표이사는 서강대 신문방송학과와 서강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지난 81년 코래드 창립과 동시에 공채1기로 입사해 18년만에 사장의 자리에 앉았다.

지난해 코래드 지분 100%를 인수한 룩셈부르크의 GMH가 코래드의 제2창업을 위해 능력 중심의 인사-경영체제로 전환한 것이 이번 발탁인사의 배경이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김명하 사장은 회장으로, 정만석 이사는 상무이사로 심후식 이사대우는 이사로 각각 승진 발령됐다.

11. 신간, 멀티미디어 콘텐츠 마케팅론

이 책은 디지털 경제의 현실성에서 출발, 콘텐츠산업의 극대화를 위한 8개의 주제를 설정하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세계가 필요로 하는 마케팅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지식기반 사회의 키워드인 '지식'과 '문화'의 집합체인 '정보'가 마케팅이라는 도구를 통해 어떻게 콘텐츠산업으로 발전하는지 정리되어 있다. 진한도서 펴, 임은모 펴.



광고공사, 뉴밀레니엄 공사인 모델 선정

2000년 경쟁체제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뉴밀레니엄 시대에 맞는 공사인, 99년 신코바코인으로 마케팅국 영업기획부 이종선 부장과 영업2국 영업1부 정택근 차장을 전직원의 이메일 투표로 선정했다.



마케팅국 명업
기획부 이종선
부장



명업2국 명업
1부 정택근 차장

신코바코인 선정은 끊임없는 자기계발, 서비스정신 함양 등 신코바코 정신의 실천으로 공사의 발전 뿐만 아니라 광고산업 과학화에 기여한 사원을 포상함으로써 21세기 전문가 집단으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되었다.

공사는 신코바코인 선정을 위해 우선 실국 및 지사의 추천으로 24명의 후보를 선발한 후, 선정위원회를 거쳐 엄선된 5명의 후보를 이메일에 게시하여 직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정토록 하였다. 전직원 이메일 투표를 통해 99년 신코바코인으로 선정된 이종선 부장과 정택근 차장은 신영어벧도 도입에 기여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창의적 업무를 혁신해 온 점이 사원들로 하여금 좋은 반응을 불러냈다.